

박상만 금속노조 14기 위원장 당선 황영선 수석, 허원 사무처장 동반 당선 ... 김병철·이태현 부위원장 당선



허원 사무처장-박상만 위원장-황영선 수석부위원장 당선자

금속노조가 3차에 걸친 투표 끝에 14기 위원장으로 박상만 후보가 당선됐다. 수석부위원장은 황영선 후보, 사무처장으로는 허원 후보가 당선됐다.

박상만 위원장 당선자는 현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 현대자동차지부 조직강화부장, 정비위원회 부의장, 노조 대외협력실장 등을 역임했다. 황영선 수석부위원장 당선자는 기아자동차지부 출신으로 지부 고용실장, 조직실장, 노조 감사위원을 역임했다. 허원 사무처장 당선자는 현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 현재 한국지엠지부 소속이다.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을 지냈다.

기호 1번 박상만-황영선-허원 후보 조는 1차 투표에서 39.09% 득표율(54,995표)을 기록해, 34.71% 득표율(48,831표)을 기록한 기호 2번 박성철-김유철-엄미야 후보 조와 2차 투표를 진

행했다.

11월 25일(화)부터 11월 28일(금)까지 진행한 2차 투표 결과 기호 1번 박상만 후보조 58,846표(46.68%)를 받아 5만 4천160표를 받은 기호 2번 박성철 후보 조(득표율 42.96%)를 앞섰으나 과반을 얻지 못하여 3차 투표를 진행했다.

3차 투표는 기호 1번 박상만 후보 조에 대한 찬반투표로 12월 2일(화)부터 12월5일(금)까지 진행했다. 3차 투표 결과 박상만 후보 조는 86,202표(79.17%)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 2차 투표에서 노조 부위원장 기호 4번 김병철 후보 95,377표(75.66%), 기호 5번 이태현 후보 90,650표(71.91%)로 당선을 확정했다. 5명을 선출하는 노조 부위원장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한 두 후보를 놓고 2차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김병철 당선자는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의장, 이태현 당선자는 현대중공업지부 선전편집실장으로 역할 했다.



금속노조 14기 김병철, 이태현 부위원장 당선자(2차 투표)

“우리는 승리하러 왔다! 고용승계 보장하라”

대전충북·한국지엠지부, 지엠세종물류센터 직영화 쟁취 공동결의대회 열어

한국지엠 원하청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GM 세종물류센터 직영화와 직영정비센터 폐쇄 철회를 함께 외쳤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한국지엠지부가 12월 2일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지엠 자본의 하청노동자 일방 대량 해고와 불법파견, 물류센터 외주화를 비판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지엠 물류 동지들 20년 넘게 억압과 차별 속에 살았다. 차별을 딛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싸우겠다고 했다.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원 부위원장은 “자본은 계약해지로 답했다. 해고다”면서 “기업의 목적 중 하나는 고용보장이다. 이것을 내팽개친 지엠 자본을 용서할 수 없다. 똥똥 뭉쳐서 투쟁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 직영 정비 사업소 매각 저지, 고용승계까지 함께 싸우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현구 노조 대전충북지부장과 윤용신 한국지엠지부 수석

부지부장도 투쟁 중인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권현구 지부장은 “이곳 세종물류센터 모든 결정권은 한국지엠이 가지고 있다. 이 폭력과 만행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노했다. 윤용신 수석은 “두려워 마시라. 견뎌내야 한다. 우리에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지엠지부가 있다”고 단결을 강조했다.

김용태 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장은 “오늘 우리는 같은 현장, 같은 투쟁의 역사 위에 한목소리로 이 자리에 섰다”며 “대전충북지부와 한국지엠지부가 함께하는 이 결의대회는 단순한 연대가 아니다. 지엠이 만든 부당한 구조와 책임 회피에 맞서 새로운 투쟁의 장을 여는 결의의 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지회장은 “지엠이 지금 한국 사업장 전체에 구조조정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직영정비 폐쇄, 외주화 확대, 하청업체 흔들기, 이 모든 과정의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불법파견 소송으로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본사는 발탁채용이라는 꼼수로 조합을 약화하려 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노조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라. 하청 노동자 희생시키는 구조조정 중단하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돌려놓으라”라며 “노동자가 현장을 멈추면 지엠 공장 물류도, 그 어떤 생산 라인도 움직이지 못한다. 우리는 승리하러 왔다”고 선언했다.

